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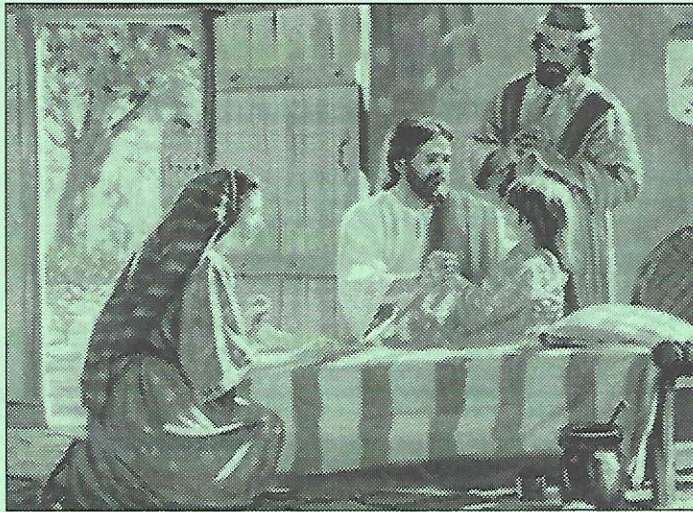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3주일 교황주일

제35권 31호(나해) 2015년 6월28일

[목사]



탈리타 쿤!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진 것도 베드로요,
자기 발만은 씻을 수 없다고 우긴 사람도,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자른 것도 베드로이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베드로다.
베드로는 성급하고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박해하던 바오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
그분을 증거하는 데 전 생애를 바쳐 지나간 삶을 후회라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사면팔방으로 찾아 다니며 복음적인 열정을 불사른다.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 자신들이 겪었던 것처럼
사도직 수행의 방법 차이 때문에 오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
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는 교회의 두 수레바퀴이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튼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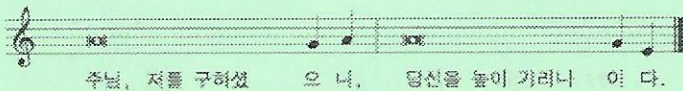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생) 이광희 루시아, 송영애 로사 & 에이든 바오로, 오창근 베드로 사제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권분남 콜롬바, 현시영 요셉, 이용식 베드로, 노근용 바오로 & 이금순 마리아, 김상진 토마스,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이종수 마틴, 낙태아들의 영혼, 오진 베드로, 박요셉&마리아&박준호&이세시리아, 구연석, 연옥영혼, (생)손왕업 율리암, 이 아가토 & 이루시아, 유철희 바오로, 박영식 바오로 & 그레이스 리, 임지현 디나가정, 이정현&이경수헬레나 & 이준영마르코 & 이제이미 크리스티나, 이정훈안젤모가정, 하양숙 마틸다가정, 이태옥 아가다 가정, 김현우 바오로, 민원희 안나 & 민경근 베드로, 김마누엘라 수녀, 강동욱 세례자요한 신부, 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1,13-15; 2,23-24

화답송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습니다.◎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 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제 2독서 코린토 2서(Corinthians)8,7.9.13-15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복음 마르코(Mark)5,21-43<또는5,21-24.35-43>

영성제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17	187	187
봉헌	377	268	268
성체	291	305	282
파견	364	119	312

소심하고 겁 많은 이사악

성경에서 이사악의 이야기는 아주 놀랍고 재미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아주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어렵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의 탄생을 예고했는데 사라의 어이가 없어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비웃음의 반응이었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못할 일이 있느냐며 왜 웃었는지 다그치자, 사라의 안 웃었다고 잡아떼입니다. 이때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18,1-15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이 약속하신 아들일 뿐 아니라, 고령에 얻은 자신의 분신이었습니다. 이사악을 얻게 되는 과정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체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인 하가르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창세 21,1-21

이사악에게 가장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두 하인을 데리고 하느님께서 일러 주신 장소로 길을 떠납니다. 이사악은 침통한 표정의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랴 대답했고, 그 이후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22,1-19.

기근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사악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고 주님이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악은 그라르 지방에 머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 레베카가 너무 예뻐서 그곳 사람들이 혹시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악은 어떻게 했고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26,1-22

성경의 이사악은 특징이 별로 없는 보통의 사람입니다. 소심하고 겁도 많고 내성적이고 다툼을 싫어하는 보통의 사람을 통해 하느님의 역사(役事)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착하고 평범한 이사악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에서 마련된다.” 고들 한다.” (창세 22,14)

“ 나는 너에게 한껏 ()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처럼, 바닷가의 ()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 22,17-18)

나에게는 아이로와 같은 아픈 딸이 없어요

저에게는 딸도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자존심 상해가면서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독신이니, 내 몸 하나만 잘 건사하면 됩니다.

가족이 아프다고 아픈 사람을 데리고 밤이나 낮에 병원 문을 두드린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플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자식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상팔자로 태어난 것이 맞나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으니,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없이 팔자가 늘어진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입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한 분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형제이며 가족입니다. 아프고 굶주리고 불행을 겪고 있는 누군가는 바로 내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거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아이로의 딸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소수의 사람마저 아니꼽게 바라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나약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도태시키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로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두들 발걸음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슬픔에 찬

아이로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마르 5,36)

무진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가 되더니, 두려움이 많아지고 용기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서로 믿음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하고, 또 많은 사람이 타의에 의해서 여러 형태로 불행하게 죽어갑니다.

모두 한 가족, 같은 형제자매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들어봅시다. “탈리타 쿴!” 모두들 “일어나라!”

◆ 주수옥 신부 / 대방동성당 주임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살면서 힘겨웠던 적 어디 한두 번이었으랴.
주저앉아 다신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살게 하는 게
어디 한두 가지랴.

그중 제일은 찬물 한 그릇 나눠 마시는 일,
더운밥 한 수저 나누는 일,
서로의 언저리에서 오래 바라보는 일.
그리고 유독 힘든 날일수록
그런 나를 가만 마주하는 일.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김금자 데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 베드로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 ☆
 ☆ 6월29일은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로 ☆
 ☆ 오창근 베드로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
 ☆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 오늘주일 전신자에게 맛있고 시원한 미역국을 대 ☆
 ☆ 접합니다. ☆
 ☆ ☆☆☆☆☆☆☆☆☆☆☆☆☆☆☆☆☆☆☆☆☆☆☆☆☆☆☆☆☆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 6월27일(토) 오후 6시에 4명의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최솔 세실리아, ♡박지웅 라파엘,
♡신보경 올리아, ♡신유림 아녜스

◆ 2015년 제28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것이다.(루카 10:28)
- 일시 : 7월25일(토)오전 8시~오후 10시,
7월26(주일), 오전 8시~오후 6시,
- 강사 : 황창연 신부(성필립보 생태마을 관장),
윤민재 신부(용인대리구 성령지도신부),
김경희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장소 : 이스트LA 칼리지 1301 Avenida Cesar Chavez
Monterey Park, CA 91754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준비물: 도시락, 물

- 문의 : 강아녜스 ☎ (310) 780-0369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중,고등부
- 자격 : 영어가능한 남녀교우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장 (310)709-3343

◆ 주일학교 서머캠프 중입니다

- 일정 : 오늘주일 (28일) 오후 3시 귀가예정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www.oakglen.org)
6월26일(금)부터 오늘 주일까지 서머캠프에 참가중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남가주 남성 /여성 영어 꾸르실료 교육

- 일시 : 남성 7월 23일(목) ~26일 (주일)
여성 8월 27일(목) ~30일 (주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Reatreat House
- 신청마감 : 남성 7월 17일
여성 8월 14일
- 지도 : 이유진 유스티노 신부
- 자격 : 21세이상 봉사정신이 투철한 가톨릭 신자
- 문의 : kccmsc@gmail.com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28일(주일) * PV1반 : 미역국 (\$0)
* 주일학교 : 방학
- 7월5일(주일) * 소공동체 : 김밥(\$4)
* 주일학교 : 방학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미순 김교복 김병조 김병태 김 욱 김원모 김형순 류현욱 박광자 박영식 박운모 반비오 신순철 양영관 오수인 오신재 오영섭 우일환 유희연 이근태 이병우 이우성 이태옥 전동훈 정혜영 정훈모 차정애 최미열 최열자 하양숙 한길선례	강미순 김교복 김병조 김 욱 김원모 박광자 반비오 신순철 양영관 오수인 오영섭 유희연 이근태 이병우 이우성 정혜영 정훈모 최미열 최열자 하양숙 한길선례
합계: \$4,400	합계 : \$2,230
주일미사 헌금 : \$2,554	주보광고 : \$480 마가렛메리성당 도네이션 : \$100

◆한국학교 SAT 시험 준비반 및 여름 특강

- 기간 : 6월 20일~8월 8일 매주 토요일(7월 4일 제외)
- 시간 : 9:30 am~ 12:30 pm
- 문의: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남가주 청년 성령 기도회

청년들을 위한 기초성령세미나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17)

- 일 시 : 7월 10일(금)오후5시 ~7월 12일(주일)오후 4시
- 대상 : 하느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젊은이
- 피정지도 : Fr. Joe Kim
- 참가비: \$150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 , Riverside
- 문의: 김모니카 (310)999-1142
최루이스 (714)392-1732

◆제21차 남가주 선택 주말

- 일 시 : 7월 17일(금) ~7월 19일(일)
- 대상 : 25세~37세 사이의 가톨릭미혼남녀
- 참가비: \$300(본당신부님 지원여부 확인)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Peter Koo (213)605-2817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따른 침묵의정

- 일 시 : 7월 31일(금) ~8월 2일(주일)
- 지도신부 : 하태수신부(예수회)
- 참가비: \$270(독방, 숙식제공)
- 신청마감 : 7월 17일 ,선착순18명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 Road
Oceanside, CA 92058
- 문의 : 정도로테아(323)937-2083, (818) 321-9505
전글라라(818) 317-6022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드 796-6763
차 장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정병옥 올리아 404-1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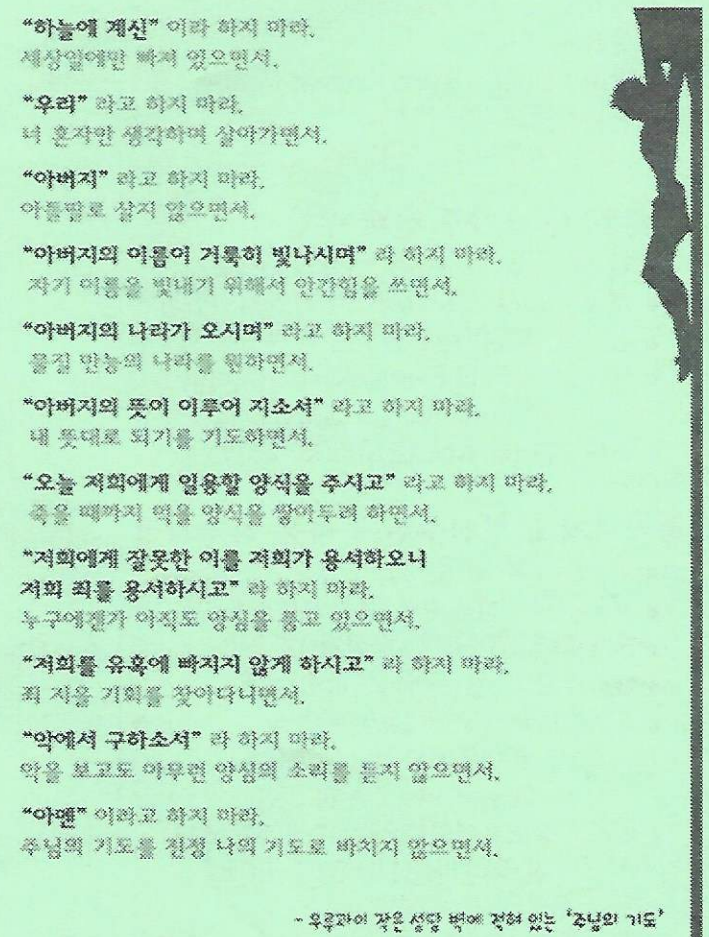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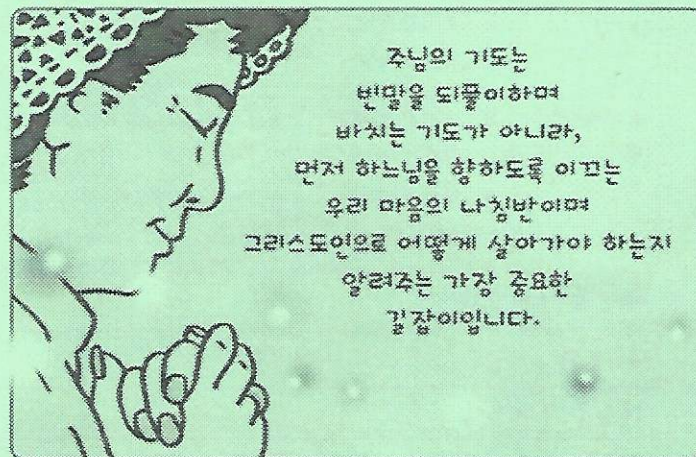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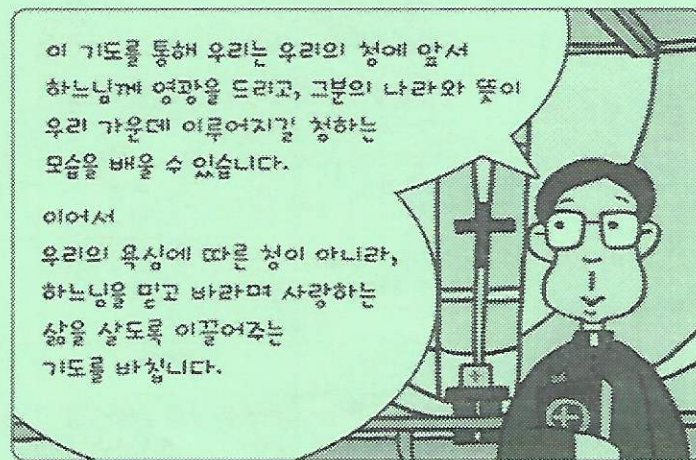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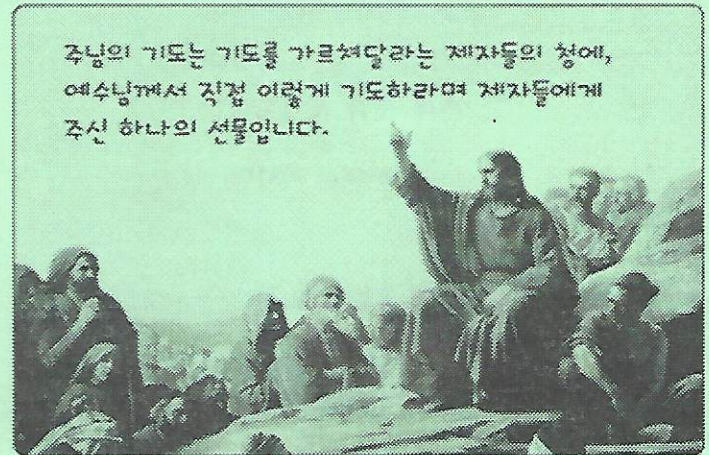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엄영희 베로니카 539-3377 6/10(일)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6/13(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병찬 안토니오 780-3258 6/6(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명렬 라파엘991-8556 6/13(토) 오후 7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변숙희 릿다 617-1132 6/12(금) 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조정석 수산나 625-3312 6/26 (금) 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634-6923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6/20(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최미열 클라라 404-1607 6/8(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유명련 마리아 749-3151 6/13(토) 오후 7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중두 요한 213-700-6983 6/12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6/20(토) 오전 11시 강당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반나영 제칠리아 617-3568 6/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오후1시
------------	------



- 옥류과이 작은 성당 밖에 걸려 있는 '주님의 기도'